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2. 제안이유

-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 감액(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안 부칙 제2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기후동행카드 사업 도입 배경과 현황

- 기후동행카드는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 서울수도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교통카드 사업임.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개요>

▶사업추진 배경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

▶기간: 2024.1.27.~6.30

▶내용: 1회 충전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을 30일간 무제한 이용

▶가격: 65,000원(따릉이 포함) / 62,000원(따릉이 제외)

\*청년(19~34세)은 일반가격에서 7,000원 할인가 적용

▶형태: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예산: 401억원

▶추진 계획(안)

-(범위 확대) 서울 인접도시(경기·인천)로 서비스 범위 단계적 확대

-(권종 확대) 다양한 가격대의 소비자 맞춤형 카드 출시

-(결제 편의) 기후동행카드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 다양화

		시 범 사 업		본사업
시 기		'24. 1월	'24. 4월	'24. 7월~
서비스 범위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인천, 김포 대중교통 ※ 관련 지자체, 운송기관과 협의 후 상세 범위, 시기 확정	+ 서울인근 지역 버스 및 경전철 등 + 한강 리버버스('24.9월)
가격		62천원(따릉이 제외) 65천원(따릉이 포함)	+ 10~12만원(광역버스 포함)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 요금제 검토
결제 수단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계좌이체	+ 신한카드 결제 ※ 시금고(신한은행) 우선 참여	+ 신용·체크카드(후불), 핀테크 등 결제 수단 확대 검토
	실물	지하철 역사 내 충전기에서 현금 충전 ※ 실물카드 최초 구매 필요(3천원)		

- 현재 시범사업(2024.1.27.~6.30.)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요금 6만 5천원을 결제하면 30일 동안 서울시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당초 목표 발행량(50만장)을 2배 가량 넘어선 100만장이 발행되었고 실제 유효한 카드는 약 53만장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올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sup>1)</sup>가 전국 대중교통 이용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임.

1) 전국 대중교통망 이용시 요금의 일정 비율이(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 적립금으로 제공

- 이에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 제고와 차별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활용 범위를 서울인근 대중교통과 한강 리버버스<sup>2)</sup> 이용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내 문화·체육시설 등의 이용 요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음<sup>3)</sup>.
- 참고로 서울시는 이번 회기에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제공 확대를 위해 시립과학관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4개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안을 제출한 상황임.

#### 다. 시립과학관의 운영 현황 및 기후동행카드 혜택의 적절성 검토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7년 5월에 개관함.

#### <과학관 개요>

○ 위 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 모	부지면적 25,875㎡ / 연면적 12,376㎡ / 전시면적 4,260㎡	
○ 총공사비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예산현황	약 46억 6천 1백만원(2024년 기준)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요 시설
옥 상	3,429.97	옥상정원, 데크쉼터, 태양광 시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R), 1교육실(생물), 2교육실(화학), 3교육실(지구과학), 교육운영사무실, 북&톡(대기실)
지상 2층	3,429.97	상설전시실(O, B), Yy어린이전시실, 열린방(자원봉사실), 직원사무실, 천체관측실, 데크쉼터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G), Y어린이전시실, 토네이도, 메이커스튜디오, 사이언스홀(강당), 사이언스숍, 도서실, 4교육실(물리), 운영사무실, 아이디어 제작소, 수장고, 안내/매표소, 아기쉼터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직원휴게실, 샤워장

2) 한강 수상버스, 2024.9월 운행 예정

3)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2023.12. 도시교통실)

- 현재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금액 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금은 그 금액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sup>4)</sup>.
- 이에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3년말까지 과학관의 방문 관람객은 총 47만 5천 7백여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약 4억 2천 8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음.

### 〈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관람객수	120,055	133,706	21,771	33,717	66,589	99,871	475,709
관람료 수입	113,425	106,477	20,511	38,218	70,394	79,018	428,043

- 한편 현행 조례 제6조(관람료의 감면)는 과학관의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요금면제와 요금 감면(50%)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만 7천 8백여명이 3억 2천 7백만원의 관람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동 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요금감면 대상에 한시적으로(3년간)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를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sup>4)</sup> 현재 과학관의 관람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7~19세) 1천원을 징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생략) 1. ~ 11. (생략)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할인이나 적립을 등의 부가 혜택이 고객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과학관 요금 감경 혜택은 이용자 확대와 정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일반적으로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자를 공격적으로 모집하는 기업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발급된 교통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각종 시설의 요금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기후동행카드 본래의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해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람료 감면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범사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이와 같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과는 별개로, 동 과학관이 그 특성상 청소년이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